필리핀(Republic of the Philippines)

面積	300천 km^2	貨幣單位	Peso(P)
人口(2001)	80.1백만 명	환율(2001년 평균)	51.0 P/USD
GDP(2001)	747억 달러	會計年度	1.1~12.31
1人當GDP(2001)	933달러		

1. 경제 동향

가. 국내 경제

단위 : %

구 분	1998	1999	2000	2001	2002f
경제성장률	-0.6	3.4	4.0	3.4	2.5
재정수지/GDP	-1.9	-3.8	-4.1	-3.9	-3.2
소비자물가상승률	9.7	6.7	4.4	6.1	4.8

□ 2001년에는 농업생산 호조, 금리 하락 및 소비지출 증대 등으로 주변 동남아 국가보다는 양호한 **3.4%의 성장률**을 기록하였으나, 9·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경기 둔화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태임.

□ 지난해 미국의 경기침체 및 주변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는 위축되었으나, 금년 초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징후가 나타나자, **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우세함.**

- 정부 제시목표(2002): 성장 4~4.5%, 물가 5~6%, 재정적자/GDP 3.3%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1년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, 최저임금 상승, 식료품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**물가상승 압박은 다시 증대**되고 있음.

□ 재정지출 수요 증가, 취약한 세수기반, 저조한 민영화 수익으로 재정수지 적자기조가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, 2001년 말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1,470억 페소(28.7억 달러 상당)로 GDP 대비 3.9%였음(IMF 차관 지원조건: 재정수지 적자 목표인 1,450억 페소 약간 상회).

□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출이 위축되어 **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.**

□ 금년 1월, 금융기관의 NPL 비율은 18%대로 상승추세에 있으며, 이에 따라 **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여력 축소 및 기업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.**

- 45개 국내은행의 NPL 비율: 10.4%('98) →15.1%(2000) →18.0%(2001.9) →18.3%(2002.1)

□ 통화당국은 확대통화정책을 통하여 해외수요 부진에 따른 기업대출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, 금년 3월 현재 일일물 차입금리는 7.0%, 대출금리는 9.25%로서, 1995년 9월 이후 최저수준임.

- 금년 들어 식료품 가격 및 통화가치 안정이 지속되면서 물가상승률도 예상보다 억제되자, 정부는 기업여신을 통한 경기부양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2000년 12월 이후 일일물 금리를 800bp 인하함.

□ 1997년 이후 GDP 대비 국내총투자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, 2001년에도 동 비중은 18%를 밑돌고 있음.

□ 9·11 테러사태 이후 반미감정이 악화되는 등 정국불안으로 FDI 유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, 그 결과 2001년 중 **FDI 유입실적은 전년 대비 47.2% 감소**한 것으로 알려짐. (1~10월 중 FDI 순유입액: 14억 달러)

□ 경제개혁 현황

○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필리핀은 인도네시아, 태국 및 말레이시아와 같은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취하지 않은 대신, 은행의 부실채권 상황을 공개하고 외환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**금융산업의 부실위험 관리에 치중**하여 왔음.

○ **공기업 민영화 추진 지연**

- 2001년 중 민영화 수익은 재정수입의 0.9%에 불과하였고, 채무 이자 지급은 재정지출의 25.2%를 차지하고 있음.
- 2001년 6월의 필리핀 전력산업 개혁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국영전력공사(NPC)의 민영화는 지연되고 있음.

나. 대외 거래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1998	1999	2000	2001	2002f
경 상 수 지	1,546	7,910	9,081	2,303	1,840
경상수지/GDP	2.4	10.4	12.2	3.2	2.5
상 품 수 지	-28	4,958	6,917	1,104	633
수 출	29,496	34,210	37,298	31,494	31,455
수 입	29,524	29,252	30,381	30,390	30,822
외환보유액	9,226	13,230	13,052	13,319	
총외채잔액	47,793	52,022	51,795	51,800	
총외채잔액/GDP	73.0	67.9	75.7	75.4	
D. S. R.	11.9	14.3	12.5	18.3	

□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1999~2000년 중 폭발적으로 상승하였으나, 2001년 이후 상품수지 흑자폭 감소와 더불어 대외채무 이자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**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됨.**

□ 2001년에는 미국의 불황과 세계적인 IT산업의 해외수요 감소로 인하여 상품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5%이상 감소하였으며, 상품수지 흑자도 2000년의 69억 달러에서 11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위축되었음.

□ **전자제품의 수출비중이 60%**를 차지하고 있고, **대미 수출의존도도 30%**에 이르는 등 무역구조의 취약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, **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우려됨.**

□ 2000년에는 회교도와 정부군간의 충돌 격화, 미국의 금리 인상 및 에스트라다 탄핵 기소 등으로 다시 불안해진 페소·달러 환율이 2001년 들어 에스트라다 사임과 관련한 정계 혼란, 회교반군 세력과의 분쟁 등으로 55 페소를 상회하기도 하였음.

□ 2001년 8월 이후에는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페소·달러 환율이 50~52 수준에서 완만한 변동을 나타내 수입가격의 부담도 상당히 완화되었음.

□ 1999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 상품·용역 수입액의 4개월 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□ 금년 들어 지분매각 등을 통해 외환 포지션이 개선되고 있는데, 2월 말 외환보유액은 16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.

다. 외채 상환 능력

□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공공차관 도입 및 국채 발행으로 2001년 말 **총외채잔액은 51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**되며, GDP 대비 비중은 75%를 상회하고 있음.

□ D.S.R. 은 1998~2000년 중 15% 이내에서 억제되었으나, 2001년에는 상품 수출의 감소 등으로 동 비율은 18.3%로 상승하였음.

□ 단기외채 비중은 10%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며, 1999년 이후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50%이하로 **외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임.**

2. 정치·사회 동향

□ 1998년 5월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스트라다는 정책수행의 일관성 결여, 여권 조직 내의 갈등 표출 및 부정부패 스캔들 등으로 2001년 1월 20일 정계에서 퇴진하였음.

□ 2001년 1월 20일, 당시 부통령이던 아로요가 군부의 지지와 '피플 파워'의 무혈혁명을 통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음.

□ 2000년 4월부터 Abu Sayyaf(al-Qaida 연계의혹)와 대립중인 정부는 부시 독트린에 따라 미국의 병력 파견에 대하여 국민의 반미감정이 격화되면서 아로요 정부는 국정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음.

□ 2001년 5월 14일에 실시된 총선 결과, 아로요 대통령의 여당연합이 상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등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신임을 묻는 선거에서 여당이 무난히 승리함으로써 정국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.

- 상원의원 13석 중 여당의 피플파워연합(PPC)이 8석에 당선됨에 따라 상원의 24석 가운데 여당은 13석을 확보하게 됨.

□ 2001년 8월, 정부는 남부지방의 이슬람 반군단체인 모로족 이슬람 해방전선(MILF)과 휴전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슬람세력과의 갈등이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임.

○ 모로족 국민 해방전선(MNLF)과는 1996년 9월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으나, 최근 Abu Sayyaf 활동지원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됨.

○ 2001년 초부터 민다나오섬 자치문제와 관련하여 소요와 분쟁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 (자치기구인 ARMM 총독, Misuari의 체포 등).

□ 빈곤계층은 1985년 인구의 44%에서 1999년 32%로 감소하였으나 30%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,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(중산층 이상 10% 불과).

□ 실업률은 1997년 7.9%에서 2000년 10.1%로 상승하여 악화되다가 2001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(사유: 농촌지역의 실업률 개선).

□ 9·11 테러사태 이후 미국 정부와의 공조로 이슬람세력 소탕을 위한 미군 주둔에 아로요 정부가 협조함으로써, 미국으로부터 군사·경제적인 지원을 약속받는 등 미국과의 관계가 한층 긴밀해졌음.
- 금년 1월 Basilan섬에 650명의 미군 주둔 허용

3.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 능력

□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

- o **OECD: 4등급(2001/1)**
- o **I.C.R.G.: 83/140(2001/3) → 59/140(2002/2)**
- o **Euromoney: 63/185(2001/3) → 61/185(2002/3)**
- o **I.I.: 66/145(2001/3) → 64/145(2001/9)**

□ S&P, Moody's 등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최근 조정되고 있지 않으나, **대부분 투기등급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.**
- 과중한 정부채무, 금융 유동성 미흡 및 취약한 금융산업 등으로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어려운 상태임.
- 금년 2월에는 Moody's가 장기전망을 Ba1 Negative에서 Stable로 평가하였는데, 주된 사유는 재정수지 적자 억제 노력, 외국인 투자환경 및 외환 포지션 개선 등 임.

□ **국제사회 및 주요 ECA 지원동향**

- o 1998년 3월 IMF로부터 13억 7,100만 달러의 대기성차관 지원승인에 따라 2000년 8월 말까지 9억 3,600만 달러를 지원 받았으나, 재정수지 개선 및 경제구조 개혁 등의 IMF 지원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IMF의 추가적인 차관지원이 보류된 상태임.

- o 세계은행: 경제 회복, 빈곤 감축, 환경 개선, 인프라 개발, 민영화 추진 및 부패 척결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지속
  - 2000년 2월: 사회보장제도 개선 및 국도 개량 사업자금 지원(2억

5,000만 달러)
- 2001년 12월: 낙후되어 있는 동부지역의 도로 개선자금 지원(2억 달러)
- 2002년: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해 Soft Loan(5억 3,300만 달러 예상) 지원 계획

○ ADB: 경제 성장, 사회보장 서비스수준 개선, 빈곤 감축 및 사회 개발에 역점
- 2001~2003년 중 16개 프로젝트에 9억 4,500만 달러를 지원 계획
- 2001년 말 현재 에너지, 농업·천연자원, 사회 인프라, 교통·통신사업이 지원총액의 84.5%

○ 미 수은: 차입자와 차입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(미 OPIC은 경제개혁 지원을 위해 2억 달러의 신용한도 설정 계획)
○ 일 JBIC: 2001년 4월부터 1년간 IT산업 육성 등에 325억 엔을 한도로 언타이드론 지원 승인
○ 독일 Hermes: 부보한도는 제한 없으며, 프로젝트당 부보한도는 25백만 유로로 운용

□ 대 ECA 연체율은 2001년 말 현재 7.2% 수준이고, 리스케줄링 채무는 거의 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5. 요약 및 전망

□ 상품 수출의 대폭적인 감소세로 경상수지 등 **국제수지가 다소 악화**되고 있으며, 특히 재정 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해외차입 증가로 외채가 누적되면서 **외채구조 악화도 우려됨.**

□ 경제상황은 미국 경기가 **회복되는 조짐**을 보이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모이며, 2001년 1월 이후 아로요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변국 및 선진국과의 관계증진을 통해 **정치불안도 상당히 불식된 상태**이나,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개선정책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.

□ **경제 구조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나, 개발금융기관과 수출신용기관의 지원태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**이며, 신용평가기관의 평가

등급도 별다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등 당분간 신용등급에 변화를 줄 만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기 타

가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 : 1949년 3월 3일(북한과는 2000년 7월 12일 수교)

□ 주요협정 : 무역협정('61), 항공협정('69), 경제기술협력협정('85), 이중과세방지협정('87), 투자보장협정('96)

□ 교역현황

단위 : 천 달러

	1999	2000	2001	주요 품목
수 출	3,128,739	3,359,774	2,372,334	전기 전자장비, 기계류, 화학제품
수 입	1,158,666	1,814,748	1,658,270	전기장비, 농산물, 철강금속

□ 해외직접투자현황(2001년 말 현재) : 523건, 422,285천 달러

나. 우리은행과의 관계

□ 대출 현황(2002년 2월 말 현재)

구 분	승 인 액	집 행 액	대 출 잔 액
수은대출(천달러)	354,559	344,309	86,664
수 출 자 금	286,522	278,363	76,843
해 투 자 금	63,839	62,507	9,701
수 입 자 금	4,199	3,438	120
경협자금(백만원)	53,178	13,961	11,749